

서울 중심에서 무재해 꽃을 피우는 현장

— 삼성건설 신당6 재개발 래미안 현장 —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신당6 재개발 현장의 안전철학은 “배려”

2009년 6월 띄복기로 유명한 신당동에 지상 9층에서 15층 16개 동 아파트 재건축 시공이 시작되었다. 서울 중심의 “Green Oasis” 명품 주거단지를 꿈꾸며 신개념의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있다. 바로 명품아파트를 만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12,400평 모두가 압반이고 30.9m에 이르는 단지 내 고저차는 안전시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복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유로 공기지연과 몇 배의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얼굴을 붉히는 일은 전혀 없다. 여기에는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시설에 투자만으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안전관리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생각이다.

정진호 현장소장은 이에 대해 「최근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안전의 중요성” 이전에 “인간의 중요성”을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운이 나빠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중요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힘든 열악한 현장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오늘도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배려”가 아닌가 싶다.

열악한 환경, 추락재해만 잡는다

동재우 안전팀장이 현장에 첫 발을 내 디었을 때 채석장을 방불케 했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현장 내 전체가 암으로 되어 있어 기초공사부터 난황이 예상되고 있어 발파공법 수반은 필수 상황이다. 바로 인접하고 있는 주민과 심한 고저차로 자칫 파편이 주민에게 튕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약을 줄여 여러 번의 발파를 시도했고, 인근 주택과 인접한 암은 먼저 구멍을 뚫고 유압으로 깨는 공법을 이용한 무진동 공법으로 안전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힘든 발파공법이 끝나니 동과 동의 단차가 30.9m인 상황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즉, 추락재해에 대한 우려다. 동재우 안전팀장은 무조건 추락재해만 잡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추락재해에 대한 우려 컸다.

따라서 중점위험작업으로 분류하여 작업전 사전계획은 필수, 위험성평가는 물론 협력사와 함께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위험성 도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고는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했던가? 추락재해만 잡으리라는 이곳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1.1m 높이에서 뛰어 내리다 발뒤꿈치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1년의 공기동안 먼지하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를 하게된 계기가 된다.

근로자의 상처를 보살피는 엄마의 손길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다. “소독하러 빨리 오세요”, “오늘 치료 받는 날입니

서울 중심지에 위치하고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고 있어 지하철 접근이 용이한 아파트, 지대가 높아 조망권 또한 좋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분양이 되었던 신당6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정진호 소장의 지휘 아래 시공이 한창인 삼성건설. 현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안전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본지가 취재를 하게 된 동기도 주변의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일정을 잡아 인터뷰를 하게 됐다.

현장 입구를 들어서면 순간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시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들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답게 동과 동 사이는 좁았고 구배와 단차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보는 순간 안전에 있어서 둘째라면 서러워 할 삼성이 과연 어떤 안전관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설레는 마음을 안고 관계자분들을 만나 이들의 독특한 안전이야기를 들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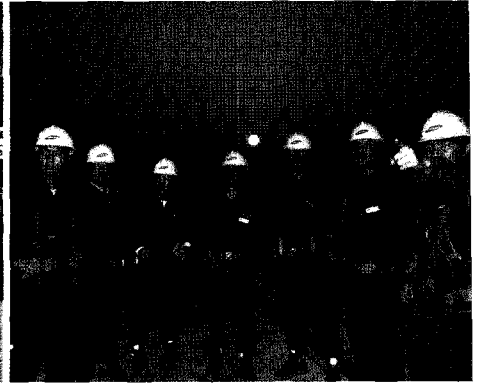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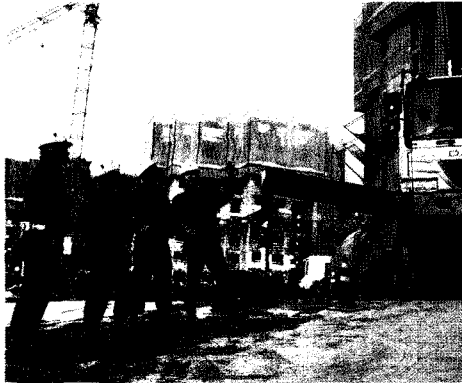
다.", "어제 난 상처는 어떠세요." 안전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에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따뜻한 목소리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로자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곳 현장에서도 의례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여 일하다 상처 난 근로자의 심신을 따뜻하게 보살핀다.

일하다 글키거나 가벼운 상처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 공기를 끝내야 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이곳은 쉼터고 휴식공간이다. 다음날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으면 협력소장에게까지 전화해 치료 받도록 한다. 이렇다 보니 건강관리실은 근로자들에 있어 인기 만점이다.

건강관리실은 근로자가 다친 곳만 치료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 안전관리 방향도 제시해준다. 치료 기록지에는 왜 다쳤는지 그 원인이 기록되는 데 상당수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와 함께 전도재해 예방에도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된다.

앞으로 준공까지 1년의 공기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이끌어 왔듯이 남은 1년이 중요하다. 부대토목 및 조정, 상부층 마감작업이 겹치면서 많은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다. 이는 인적오류와 중장비에 의한 사고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비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다. 중장비 투입전 장비사용계획을 사전 제출한다는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단발공사는 철저히 퇴출시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중장비에서 오는 위험을 잡음으로써 안전한 준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정진호 현장소장

배려는 안전과 무재해의 근간입니다.

배려는 안전과 무재해의 근간입니다.

안전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존중'입니다. 인간존중이라는 것은 즉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해당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존중될 수도 없고 곧 안전도 무재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많은 발전을 하면서 안전시설도 세계수준급일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끝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에는 이를 수용하는 근로자, 즉 사람의 생각이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안전의식은 안전교육을 통해서도 교습시킬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안전을 먼저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배려심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재우 안전팀장

근로자의 건강을 챙겨야 할 때

저희 삼성건설은 환산재해율과 같이 공사금액 1,000억당 산업재해율을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OHSMS를 도입하면서 2009년까지 1,000억당 재해율은 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0.7대의 재해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도 0점대에 진입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동안 산업안전을 통해 재해율을 줄여왔던 것에서 보건관리를 통해 재해를 줄여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회사 부서명을 보면 품질안전보건에서 품질보건안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을 더 중요시 여겨왔던 것에서 앞으로 보건에 더 치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도 점차 보건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보건관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